

전주 '드론 안전성 검증 시범사업' 본격

한국국토정보공사·유콘시스템, 국토조사·안전진단·재해감시 등 드론 활용 시연

전주시가 미래 100년을 책임질 새로운 먹거리산업인 드론(무인비행장치) 산업 육성을 본격화한다. 전주시는 드론(무인비행장치)산업 육성을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LX)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드론 안전성 검증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1일 중인동 완산체력공원 내 시범공역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박현규 전주시의회 의장, 황성연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 정연석 항공안전기술원장, 김순태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사업본부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드론 안전성 검증 시범사업' 개소식을 가졌다.

이날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고정익 드론(대형측기 Topdrome-100, 호정솔루션 QuestAV Q-200)을 활용한 자

동경로 비행 및 공역촬영 등의 국토조사 시연과 회전익 드론(LX Inspire)을 활용한 시설물 안전진단 등 실시간 모니터링 시연을 펼쳤다. 또, 유콘시스템에서는 고정익 드론(리모아아-002T)을 활용해 산림조사와 재해감시 등을 시연했다.

전주시 완산체력공원 내 시범공역은 이륙장 조성과 함께 추경진을 착륙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회의실과 드론 보관소, 전기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또, 바람의 세기와 방향을 측정할 수 있는 풍향풍속계, 항공촬영 영상을 볼 수 있는 관측용TV, 사무용품, 기타 통신·안전장비가 구축돼 오는 2017년 말까지 항공안전기술원이 승인한 비행계획에 따라 드론 시범비행을 실시하게 된다.

시는 향후 드론을 활용한 야간, 장거리, 고고도 비행 등을 포함해 국토조

사·지적측량·택배물류 등 유망사업 분야의 시험운영과 안전성 검증을 추진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호정솔루션 대영측기, 성진어어로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국토조사와 시설물 안전진단 등 시범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아울러, 드론 안전성 검증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시범사업자와 참여기업 등에 대한 홍보를 통해 전주시 시범공역의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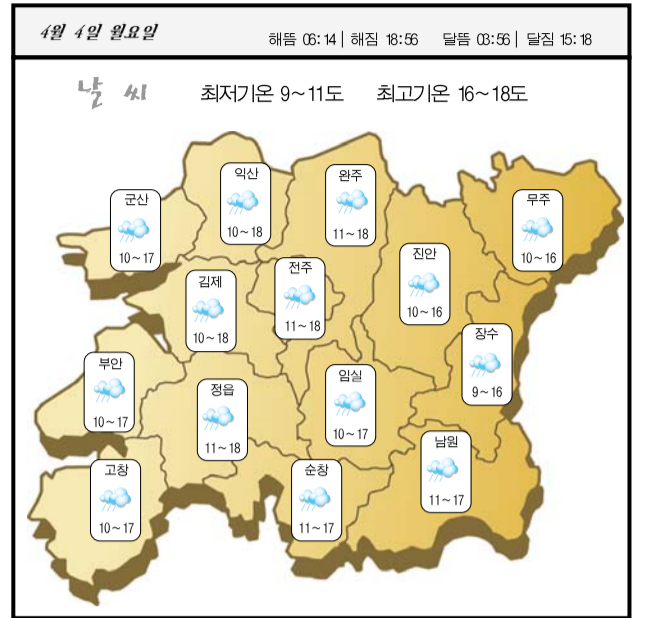
항공공학과 IT기술이 융합된 드론산업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급성장을 보이는 산업으로, 시장 규모도 지난 2014년 50억 달러 수준에서 오는 2020년이면 100억 달러 규모로 급속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시는 드론산업 육성 및 세계시장 선점을 위해 전라북도와 공동으로 농생명 인프라와 농생명 SW융합클러스터를 기반으로 규제프리존을 선정

하는 등 '농업용 드론센터 및 드론밸리'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탄소복합재 적용 초경량 드론 플랫폼 기술개발 등 '드론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창업 및 국가공모사업 지원 등을 통해 관련 기업을 육성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시 신성장산업본부 관계자는 "전주는 경량화 소재인 탄소산업의 중심지이자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전자부품연구원 전북테크노파크, 캠퍼스융합기술원, 등 ICT기술기반과 융합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 국내 드론산업 생태계 조성의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다"며 "시범공역을 활용해 안전성과 상용화 가능성을 검증하고, 드론산업 육성 및 지역특화 사업을 추진해 전주시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영재 기자



“안타까운 죽음 계속 기억할 것”

김승환 교육감 등 세월호 참사 2주기 앞두고 팽목항 찾아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4.16 세월호 참사 2주기를 앞둔 지난 1일 전남 진도 팽목항을 찾았다.

김 교육감은 이날 본청과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직원, 단위학교 교장 등 120여명과 함께 오후 1시께 팽목항에 도착했다.

버스에서 내린 방문단은 곧바로 세월호 희생자 임시 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들의 영정 앞에 분향했다.

이어 유가족들의 눈물과 한숨이 끊이지 않는 방파제로 발걸음을 옮겼다.

사람들은 지난해 4월 단원고 학생 250명 등 총 304명의 안타까운 죽음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이곳에 세월호 기억의 벽을 세웠지만, 그 벽을 은은하게 물들였던 노란 리본들은 국민들의 망각의 속도만큼이나 빠르게 빛바래고 찢겨진 채 바람에 날아가고 있다.

방문단은 다시 분향소 옆 유가족 대기실로 이동해 분향소를 지키던 유가족을 만나 슬픔을 나눴다.

김 교육감은 유가족들에게 “원인규명이 조속히 해결되길 바란다”면서 “또다른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북교육청은 계속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인형 기자



전북도는 지난 1일 도청종합상황실에서 송하진 지사, 35사단장, 전북지방경찰청장 등 재난관리 책임기관장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관리 위원회를 개최해 2016년도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전북도, 올해 '안전관리계획' 심의·확정

자연·사회재난·안전관리대책 3개 분야 53개 유형별 안전관리대책 등 마련

전북도는 1일 2016년도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은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수립되는 지자체 안전관리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자연재난, 사회재난, 안전관리대책 등 3개 분야 53개 재난유형별 안전관리대책, 재난대응 업무별 상호 협력 계획 등이 담겨져 있다.

앞서 도에서는 예방·대비·대응·

복구 등 재난관리 단계별 세부계획을 수립해왔다. 올해는 예기치 않게 발생되는 재난상황에 대하여 원인분석부터 대응조치까지의 단계별 계획을 구체화하여 실효성을 확보했다.

이번에 도에서 가장 역점을 둔 부분은 ▲안전사고 사망자 수 감축 ▲자연재해 최소화 ▲재난대응 역량 및 예방활동 강화 등이다.

안전사고 사망자 수 감축은 최근 3

년간 4대 분야(화재, 교통, 자살, 감염병) 안전사고 사망자 수 1,279명 대비 1.74%(222명)를 37개년에 걸쳐 감축한다는 계획을 반영했다.

또한 자연재해 최소화를 위해 상습침수지역, 산사태위험지역, 급경사지 등 117개 지구 재해예방사업(1,536억원)에 대하여 우기 전에 주요공정을 80%까지 완료한다는 목표도 설정했다.

이러 '재난대응 역량 및 예방활동 강화'를 위해 공무원의 교육·훈련을 도민대상으로 확대하고, 도시·해안·농촌 등 지역특성과 재난유형에 맞는 현장훈련 강화,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재난위험지역 안전점검,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 민간에 첨단·자율방재단 활성화, 안전문화 확산 계획 등이 포함됐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재난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른다. 사전 대비를 잘 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전북도 안전관리계획이 실효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관별 안전관리계획 이행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영수 기자

완산구 건축과, 관내 신축건물 현장학습

완산구청 건축과 인허가담당 공무원들은 지난 1일 효자동 소재 신축 건물 현장을 찾아 도면과 시공의 적합성을 파악하는 등 현장학습을 실시했다.

이는 전주시가 공직자 5계명을 통해 강조하고 있는 현장 학습의 중요성을 일선에 있는 구청 공무원들이 직접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을 방문한 이기용 주무관(완산구 건축과) 등 7명은 현장사무소에서 설계·감리자로부터 신축중인 건물에 대한 개요설명을 듣고 도면과 현장의 일치여부, 내부 단열재 시공의 적합성, 천정 설비의 정리상태 등을 꼼꼼히 살폈다.

또한 건축허가표지판 설치 위치, 주변 도로와 인도에 건축자재 적재

방지, 낙하물 방지망 및 비스편지 분진망 설치, 소음·진동 예방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앞으로도 완산구청 건축과는 건축민원 공동주택, 환경개선 사업, 저소득층 주거복지 등 분야별 학습과 선진지 벤치마킹을 통해 현장에서 문제를 직접 파악하고 현장중심의 피드백을 통한 세심한 민원행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명춘 건축과장은 "최근 현장 학습이 전주시 공직자의 주요 덕목으로 언급되고 간부공무원의 현장체험 아카데미가 실시되고 있다"면서 "건축행정 일선 공무원들도 현장과의 피드백을 통해 신뢰받는 행정 구현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전북은행

한분 한분의 마음에 행복을 꽃피우는 금융생활의 따뜻한 동반자

기다리던 봄, 설렘 가득한 마음 곳곳에 행복이 전해지도록 전북은행이 따뜻한 햇살을 비추어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을 위한 나눔 실천

저소득층 가정 및 사회취약층을 위한 지원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인재양성을 위한 지원

문화단체 및 지역민의 다양한 체육행사 지원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환경보호 활동